

온양읍 용화리1구에 위치하고 있는 온양중학교 교내의 산중턱에 올라서보면 장춘단 이라는 곳이 있다. 때는 6.25가 터진 1950년 이곳 온양에도 어김없이 붉은 마수가 손길을 뻗었다. 읍민들은 아무런 대비도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무고한 양민들은 아무런 죄없이 억울하게도 그만 내무실에 갇히게 되었다. 참다못해 어린학생들이 반공투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는 반공 이념이 투철한 유진호 선생님과 음악부원 1명과 4명의 학생들이었다. 6.25사변 당시 이땅을 짓밟은 공산 도당을 무찌르고자 죽기를 맹세하고 몰래 태극단을 조직하여 항쟁하다가 끝내는 농들의 총칼에 참혹한 죽음을 당한 온양중학교의 여섯 꽃봉우리가 있었으니 유진호 선생님과 학생 양광섭, 이영환, 이택윤, 권길옥, 김은영님들이다. 이 태극단의 하는 일은 음봉, 둔포, 영인 등을 순회하며 애국지사의 숙청명단을 몰래 입수하는데 성공하여 애국지사들을 피신케 하도록 하며 신천호텔에 갇혀있던 4,500명의 애국지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들 5명이 선발되어 활동도 하였다. 7월 20일 이들 모두는 혈서에 "죽으면 같이죽되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죽자."는 혈서를 썼다. 이후 공산당, 인민군들은 소위 인민 권기대회를 열고 인민재판이 시작되어 애국지사 및 유지들이 몽둥이, 갱이, 삽으로 무참히 찢히고 얻어맞고 짓밟히는 소름끼치는 죽음을 당하는 아픔을 본 이들은 더욱 분에 넘쳐 주먹에 힘을 주며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각오를 한다. 이들은 또한 라디오를 몰래 톱톱히 청취하며 태극기를 제작, 9월 15일 맥아더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라디오에서 들으며 인민군에게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쁜소식을 알리며 희망을 주었고 제작했던 태극기를 나누어 주는 일까지 열심히 해냈다. 이렇듯 지방 유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피신하도록 도와주는 일(숙청 대상자에게) 주민에게 반공이념을 주입시켜 승공투쟁을 하도록 하는등 아산군민에게 복과 만행을 규탄하도록 유도하는데 청춘의 피를 들끓게 한 것이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여 1950년 9월 20일 정치 보위부 요원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50년 9월 26일 새벽 실옥리 밭에서 처형당하고 말았다. 그 이후 해마다 9월 26일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있다. 학살당한지 19일만에 1950년 10월 15일 당시 교장 이성규 선생의 주선으로 구 온양중학 교내에 유해를 모시고 단을 모아 장춘단이라 이름하였다. 1961년 당시 교장 황제주 선생이 석탑을 세워 준수함으로써 초라했던 장춘단이 정화되었다. 온양중학교가 이전됨에 따라 1979년 7월 31일 교장 이응주 선생에 의해 현재 이 자리에 이장되고 석탑도 옮겨진 것이다. 나는 온양에 살면서도 이런 사실들을 전혀 몰랐다. 너무 내가 어리석었던가 보다. 어린 나이에 죽어간 우리의 선배님들의 정의감과 애국심에 다시 한번 머리숙여 깊이 감사한다. 그때 그렇게 애국적인 대한의 아들 딸들이 없었던들 지금의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으리라. 붉은땅 !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우리 선배들의 죽음으로 지킨 이땅 우리가 할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태극단의 유진호 선생님과 여러학생들의 훌륭한 업적을 이 글로써 다시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길이 기리고 이어가야겠다.